

이야기 회상산출에서 주어 생략 특성

곽미영*

대구대학교 대학원

권도하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요약》

본 연구는 한국어의 이야기 회상산출에서 나타나는 주어 생략 특성을 밝히고, 연령에 따른 절의 길이와 조밀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5세 6개월 ~ 5세 11개월(5세 후반), 6세 6개월 ~ 6세 11개월(6세 후반), 7세 6개월 ~ 7세 11개월(7세 후반), 8세 6개월 ~ 8세 11개월(8세 후반), 9세 6개월 ~ 9세 11개월(9세 후반)의 일반 아동들 각 10명씩, 총 50명의 대상에게 'frog, where are you?' (Mayer, 1969)를 들려주고 회상한 샘플을 절 단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절에서 주어가 생략되거나 존재하는 정도가 연령 내 및 연령 간 비슷하였다. 이는 5세 후반 이전에 한국어(모국어)의 기본 구조를 익힌 원인으로 생각된다. 주어 표현 유형에서 연령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주어 존재(생략 불가)'와 '생략(생략 가능)'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존재(교체)' 유형은 8세 이후 나타나지 않았다. 주어 표현의 적절성에 따라 연령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6세 후반 이후 주어 표현의 적절한 사용이 증가하였다. T-unit이나 C-unit의 평균길이(MLTR)로 분석한 절 길이에서 연령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절 조밀도가 연령에 따라 천천히 증가하였다. 한국어의 주어 생략 특성과 절의 구성, 연령에 따른 절의 발달 등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한국 아동의 구문 능력을 평가할 때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주어 생략, 주어 표현, 절 길이, 절 복잡성, 구문 발달

* 제1저자, 교신저자(0604miyo@hanmail.net)

1. 서론

한국어는 문장 층위나 담화 층위에서 주어나 목적어, 서술어 등의 주요 논항들이 자주 생략되고, 어순 규칙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다양한 주요 논항들에서 생략이 나타나지만 특히 주어 사용에서 생략이 두드러진다. 더욱이 주어 생략문 뿐만 아니라 관용적 표현에서는 애초에 주어가 없는 무주어문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한국어는 문장 성분들이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어순으로 배열되며, 문장의 의미적 중심인 서술어가 뒤쪽에 위치하여서 후행 언어라 할 수 있다. 또,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사나 문법형태소의 사용으로 문장 성분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하여 어순이 바뀌더라도 의미적 변화를 거의 초래하지 않는다. 각 주요 문장 성분들은 문장의 필수적인 성분으로 문장 내에서 이동이 자유롭고, 생략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의사소통 상황에서 청자와 화자 간에 주어가 무엇인지 분명하여 추론이 가능하거나, 구정보이거나, 이미 알고 있어 비초점화된 것인 경우에 경제성의 원칙에 의하여 생략되기도 한다. 진리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선행 절에서 주어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 경우에 후행 절에서 주어가 생략되거나, 동일한 주어가 반복될 경우에 후행 절에서 생략될 수 있다. 생략을 통하여 보다 빠르고 결속된 의사소통을 이끌 수 있다. 영어는 주어가 생략될 수 없는 언어이며, 동일한 주어에 대하여 후행 절에서 지시대명사로 대치된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주요 논항의 생략 특히, 주어의 생략이 빈번히 나타나며 관용어인 경우에 더러는 주어가 불분명한 경우들도 있다.

생략은 문장 층위를 넘어서 담화 층위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화자의 인지적 경험에 관여하여(김태엽, 2000) 의미 전달과 의미 표현에 다양한 변화를 일으킨다. 주어는 한 문장 내에서 반복되거나, 문맥에서 주어가 명시되지 않아도 주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경우에 생략된다. 이는 언어의 경제성 원리와 복원 가능성에 따른 것이다. 연결어미에 의해 두 문장이 연결될 때 반복되는 요소는 생략된다(남기심, 고영근, 2011). 또한 이러한 생략은 담화에서의 결속성을 높여준다. 생략된 내용을 한 문장 안에서 자족적인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 문장 층위의 생략이라 할 수 있으며, 이전 담화를 가정하여 해석해야할 경우에 담화 층위의 생략이라 할 수 있다(양명희, 1996).

담화 상황에서 청·화자가 생략된 요소를 추론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연임(1999)은 발화정보, 상황정보, 인지정보를 제시하고, 이를 각각 순수하게 언어적 요소로 제시된 정보, 발화 정보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정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정보로 설명하였다. 발화정보는 상황정보와 인지정보에 반비례를 한다(엄순천, 2006). 이성범, 홍승진(2009)은 생략을 언어적 생략과 맥락적 생략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의사소통 상황에서 청자와 화자 간에 생략된 주요 논항에 대한 추론을 바탕으로 문장을 복원할 수 있을 때 원활한 의미의 전달이 일어난다. 생략 현상은 청자에게 효율적 전달을 위한 화자의 상위화용적 지각을 표시하는 것이다(이성범, 홍승진, 2009). 그러나 생략된 주요 논항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불명확하고, 의사소통 상호자 간에 인식이 없다면 의미 전달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발생하여 의사소통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한국어의 주어 생략 조건, 특성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잘 연구되어 있고,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주요 논항의 생략이 언어 발달에서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아동들은 보다 복잡한 구문구조들이 발달하며 대부분의 구문 발달이 이뤄진다. 문장의 형식적 길이와 복잡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대화나 이야기 나누기 등과 같은 담화(discourse) 분석 시, 여러 연구에서 형식적 결속성과 내용적 응집성을 다루고 있다. 구문 형식에 대한 분석으로 평균발화길이(MLU), 최소종결단위(T-unit), 의사소통단위(C-unit), 빈도 분포, 문장 발달 점수(Developmental Sentence Score; DSS), 길이-복잡성 지수(Length-Complexity Index; LCD), 문장 유형 등을 이용하고, 문장 내 세부적으로 문법형태소 및 연결어미와 같은 결속장치(cohesive device) 등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MLU-m은 1.5~5세 아동들에게 사용되며, 5세 이후 아동들에서는 신뢰도가 떨어져서 5~18세 아동들에게 T-unit이나 C-unit의 평균 길이(Mean Length of T-unit or Communication Unit; MLTR)를 사용할 수 있다(Loban, 1976; Miller, 1981에서 재인용). 이야기 과제에서 학령기 아동들의 산출 문장을 T-unit과 C-unit으로 분석한 선행 연구들도 있다(이강현, 권도하, 2002; 김고운, 안성우, 서유경, 2007; Strong, 1998; Scott, Windsor, 2000). 대화 형태를 제외하고, 학령기 이후의 구문 발달을 분석하는 방법들은 주어와 서술어가 문장 내에서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이러한 분석 방법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아동들의 구문 발달에도 적절한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가 담화 분석 시 언어 발달에 따른 주어 생략 현상과 주어 생략이 구문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한국어의 구문적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story) 회상산출 시 문장과 담화 층위에서 주어의 언어적 생략에 초점을 두어 연령에 따른 발달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회상산출 시 주어의 표현 양식(생략 여부, 생략 유형, 생략의 적절성)에 연령 간 차이가 있는가?
- 둘째, 회상산출 발화에서 T-unit이나 C-unit의 평균 길이(MLTR)와 절 조밀도에 연령 간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D광역시에 거주하고, 일반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재학 중인 일반 아동으로, 연령별로 5세 6개월 ~ 5세 11개월(5세 후반), 6세 6개월 ~ 6세 11개월(6세 후반), 7세 6개월 ~ 7세 11개월(7세 후반), 8세 6개월 ~ 8세 11개월(8세 후반), 9세 6개월 ~ 9세 11개월(9세 후반) 각 10명씩, 총 50명이다. 부모나 담당교사로부터 학업적·정서적·행동적·감각적·사회적·심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된 아동으로 추천을 받아 언어 검사에서 -1 표준편차 이상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아동들은 의미 전달을 방해할 정도의 조음이나 유창성 등의 언어적 문제가 없으며, 연구 대상자의 집단별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 집단의 특성

| 집단 | 남 | 여 | 수용어휘력 ^a | 표현어휘력 ^b | 문장이해력 ^c |
|-------------|---|---|--------------------|--------------------|--------------------|
| | | | 평균(SD) | 평균(SD) | 평균(SD) |
| 5세 후반(n=10) | 5 | 5 | 67.00 (6.616) | 73.90 (7.810) | 42.20(6.286) |
| 6세 후반(n=10) | 4 | 6 | 69.50 (4.673) | 81.10 (8.647) | 48.10(4.725) |
| 7세 후반(n=10) | 5 | 5 | 90.80(11.183) | 99.40 (9.675) | 52.00(4.243) |
| 8세 후반(n=10) | 5 | 5 | 111.30(14.795) | 109.00(12.884) | 52.40(2.413) |
| 9세 후반(n=10) | 7 | 3 | 117.30(13.191) | 119.70(17.702) | 54.10(3.755) |

^a수용·표현 어휘력 검사(김영태 등, 2009)의 수용어휘력 원점수,

^b수용·표현 어휘력 검사(김영태 등, 2009)의 표현어휘력 원점수,

^c구문의미이해력 검사(배소영 등, 2004)의 원점수

2. 평가도구 및 절차

대상자들에게 들려줄 글자 없는 그림책으로 ‘개구리 이야기(frog, where are you?) (Mayer, 1969)’를 선정하여 연구자가 주어가 거의 존재하는 형태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 내용을 <부록 1>에 제시하였다. 검사 실시 전에 아동과의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일상적 대화를 나눈 후, 조용한 장소에서 언어 검사들을 실시하였다. 아동에게 그림책을 소개하고, 검사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그림책을 보지않고 보조 선생님께서 들려주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아동과 함께 그림책을 보면서 검사자는 일정한 속도로 이야기 내용을 읽어주었다. 이야기를 다 들려준 후에 그림책을 덮고, 아동이 산출한 이야기를 비디오로 녹화한 후, 3일 이내에 전사하였다.

3. 자료분석

1) 절의 구분

분석을 위하여 김영태(2002)의 발화 구분 원칙에 따라, 시간의 경과나 주체의 변화가 있을 때는 구분하고, 새로운 뜻의 첨가 없이 반복된 경우나 너무 잦은 간투어, 자동적 구어, 관련 없는 내용, 혼자 중얼거림, 거의 명료성이 없는 발화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아동이 회상산출한 이야기를 주어가 생략된 경우를 포함하여 절 단위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절의 구분 원칙은 <표 2>와 같다. 자세한 설명은 <부록 2>에 제시하였다.

<표 2> 절의 구분

| 절로 인정하는 경우 | 예외 |
|--|--|
| '주어-서술어' 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 주어를 말한 후 서술어 없이 미완성한 경우 |
| 서술어와 다른 문장 요소가 있는 경우 | '보어+서술어(봄이 되다)' 로 이뤄진 관용적 구 |
| 서술어가 연이어 있는 경우(각각의 절로 인정) | '본용언+보조용언' 으로 구성된 경우는 하나의 서술어로 분석 |
| 서술어가 종결형(개가 뛰다), 연결형(개가 뛰니까), 관형사형(열심히 뛰는 개), 명사형(개 똥이)으로 나타난 경우 | 서술어인 어휘 하나로 구성된 관형사형 절은 형용사로 분석(작은 개구리가 뛰었다) |

2) 주어 생략 여부

주요 논항 중 주어가 문장이나 문단에서 나타나거나 생략되는 유형을 양명희(1996)에 따라 문장과 담화의 층위에서, 주어의 생략 여부, 생략의 조건, 생략의 간격 등에 따라 구분하였다. 문장 층위에서의 생략은 한 문장 내에서 선행절이나 후행절의 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주어의 생략을 말하며, 담화 층위에서의 생략은 두 발화

문장 이상에서 후행하는 문장에서 나타나는 주어의 생략을 말한다. 문장이나 담화 층위에서 주어가 나타나거나, 반복되거나, 생략된 유형에 따라 <표 3>으로 구분하였다. 생략의 조건 측면에서, 생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생략될 요소가 명시적으로 앞서 나타났거나 동일성이 있으며, 상황적 면에서 추론이 가능한 구정보이거나 비초점화되어서 복원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생략의 간격 측면에서는 문장 층위의 분석이나 담화 층위에서 바로 앞 문장과 관련된 생략인 경우에는 분석에 문제가 없으나 담화 층위에서 간격이 멀리 떨어진 문장으로까지 확장이 되었을 때 이들을 관계지를 마땅한 근거가 부족하여 바로 전 선행 말화로 제한하였다.

<표 3> 주어의 표현 유형

| 생략 여부 | 유형 | 조작적 정의 | 적절성 |
|-------|---------|--------------------------------|-----|
| 존재 | 생략 불가 | 선행절과 다르거나 새로운 주어가 존재하는 경우 | 적절 |
| | 생략 불이행1 | 복원이 가능한 주어를 생략하지 않은 경우 | 부적절 |
| | 생략 불이행2 | 주어에 비교·대조의 의미가 첨가되어 생략하지 않은 경우 | 적절 |
| | 교체 | 잘못된 주어로 대치가 된 경우 | 부적절 |
| 생략 | 생략 불가 | 선행절과 다르거나 새로운 주어를 생략한 경우 | 부적절 |
| | 생략 가능 | 선행절과 동일하거나 복원이 가능하여 생략한 경우 | 적절 |

주어 표현 유형 즉, <표 3>의 유형 중, ‘존재(생략 불가)’ 유형은 주어가 신정보이므로 생략될 수 없는 경우로 주어가 필수적으로 존재한다. 문어 장르에서보다 구어 장르에서 더 자주 나타나는 ‘생략(생략 불이행1)’ 유형은 문장 층위나 담화 층위에서 선행한 주어가 대명사로 변환되거나 생략되지 않고 반복되어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 유형이 담화의 결속성을 높여주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존재(생략 불이행2)’ 유형을 따로 구분하여 그 외의 경우는 과잉 정보 제공에 의한 부적절성으로 판단하였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강조나 대조와 같이 새로운 의도나 정보의 기능을 수행하는(노은희, 1997) ‘존재(생략 불이행2)’ 유형의 반복적 표현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생략(생략 가능)’ 유형은 경제성 원칙에 따라 주어가 생략된 형태이다. 이 유형들은 의사소통 상대자가 추론을 하여 복원을 하기에 용이하고, 이야기의 전개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도우며, 결속력과 응집성을 이룰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형은 적절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생략(생략 불가)’ 유형은 언급하지 않은 주어를 생략하거나 앞서 언급한 주어와 다른 주어를 생략함으로써 청자가 이해하는데 혼란을 일으키고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발화의 정보에서 더 이상

추론을 이끌어 낼 수 없으며, 상황 정보나 인지 정보를 이용하였을 때조차 추론적 해석으로 정보 파악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청자가 그 발화 문장의 심층적 구조를 알 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이는 언어적인 오류 유형이며 부적절하다. 경제성, 청자 이해, 이야기의 결속성과 응집성 등의 측면에서 그 발화 문장의 적절성을 분류하여 적절과 부적절로 구분하였다. 이를 <표 3>에 추가하였다.

3) 절의 길이와 절 조밀도

연령별 절의 길이와 조밀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T-unit이나 C-unit의 평균 길이(Mean Length of T-unit or Communication Unit; MLTR)를 산출하였다(Loban, 1976; Miller, 1981에서 재인용). 그리고 T-unit 당 어절 수와 T-unit 당 평균 절의 수를 분석하였다. T-unit의 구분은 이강현, 권도하(2003)와 배소영, 권유진, 진연선(2009)의 구분에 주어 생략을 인정하여 수정 사용하였다. Gutierrez-Clennen과 Restrepo, Bedore, Pena, Anderson(2000; Paul, 2007에서 재인용)의 연구에서 MLU-w가 MLU-m보다 형태구문적 산출과 상관이 더 높게 나타났고, Hunt나 Loban 등과 같은 연구자들이 일찍이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단어를 기준으로 측정해온 것이 일반적이다. 역사문법가들인 정렬모와 이승녕 등은 의존형태소를 단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어절을 단어로 본다(남기심, 고영근, 2011). 권도하(2010)는 ‘단어’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면서 한국어 분석 시 ‘어절’의 사용을 제안한 바 있으며, 배소영, 권유진, 진연선(2009)은 ‘단어’에 대하여 내용어 즉, 어절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어절 단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4. 결과 처리

연령 간 주어 생략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어 표현 유형에 따라 나타난 빈도수를 계산한 후 총 빈도수로 백분율화를 하였다. 주어 생략 여부, 주어 표현 유형, 적절성 등에 따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연령 간 절의 길이와 조밀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모든 자료는 SPSS 12.0 for window를 사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III.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절에서 주어가 표현되는 유형 특성과 절의 복잡성을 살펴보았다.

1. 회상산출 시 연령별 주어의 생략 표현 비교

1) 연령별 주어 생략 및 존재 비율 비교

아동이 회상산출한 담화에서 나타난 주어의 생략 및 존재의 빈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대부분의 집단에서 주어를 생략하는 비율과 존재하는 비율이 대등한 정도로 거의 비슷하였다. 5세 후반 집단에서 주어가 생략된 비율이 주어가 존재하는 비율에 비하여 다소 높았다. 5세 후반 연령 집단을 제외한 다른 집단에서 주어가 존재하는 비율이 다소 더 높았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별 주어를 생략한 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F(4, 45)=0.290, p>.05$). 또한 주어가 존재하는 비율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F(4, 45)=0.290, p>.05$).

<표 4> 연령별 주어 생략 및 존재 비율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

평균(SD)

| | 주어 생략 | | 주어 존재 | |
|-----------------|---------------|--------------|---------------|--------------|
|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 5세 후반($n=10$) | 51.58(10.960) | 16.10(6.190) | 48.42(10.960) | 15.10(7.125) |
| 6세 후반($n=10$) | 48.51(14.120) | 15.70(8.858) | 51.49(14.120) | 16.10(6.674) |
| 7세 후반($n=10$) | 47.21(12.428) | 17.70(5.478) | 52.79(12.428) | 20.40(7.947) |
| 8세 후반($n=10$) | 48.74 (7.155) | 20.10(4.280) | 51.26 (7.155) | 21.70(6.447) |
| 9세 후반($n=10$) | 46.06(14.570) | 17.30(5.498) | 53.94(14.570) | 21.70(9.592) |

2) 연령별 주어의 표현 유형별 비율 비교

아동이 회상산출한 발화에서 연령 간 주어를 표현하는 비율을 유형별 비교한 기술 통계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주어 표현 유형별 비율 중 ‘존재(생략 불가)’

유형과 ‘생략(생략 가능)’ 유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존재(생략 불가)’ 유형은 다소 증가하였고, ‘존재(교체)’ 유형은 점차 감소하여 8세 후반 이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령 집단에 따른 주어 표현 유형 비율에 대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존재(생략 불가)’ 유형($F(4, 45)=.735, p>.05$), ‘존재(불이행1)’ 유형($F(4, 45)=1.518, p>.05$), ‘존재(불이행2)’ 유형($F(4, 45)=1.094, p>.05$), ‘존재(교체)’ 유형($F(4, 45)=1.450, p>.05$), ‘생략(생략 불가)’ 유형($F(4, 45)=1.357, p>.05$), ‘생략(생략 가능)’ 유형($F(4, 45)=.095, p>.05$) 등 모든 유형에서 연령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5> 연령별 주어 표현 유형 비율(%)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

평균(SD)

| | 존재 | | | 생략 | | |
|-----------------|-------------------|-----------------|-----------------|-----------------|-----------------|-------------------|
| | 생략 불가 | 생략 불이행1 | 생략 불이행2 | 교체 | 생략 불가 | 생략 가능 |
| 5세 후반($n=10$) | 42.09 (11.455) | 4.31 (3.360) | 0.51 (1.082) | 1.51 (2.780) | 7.65 (5.534) | 43.93 (11.801) |
| 6세 후반($n=10$) | 42.56 (13.497) | 6.06 (5.114) | 1.69 (2.359) | 1.17 (3.014) | 4.29 (4.513) | 44.22 (12.061) |
| 7세 후반($n=10$) | 45.63 (10.448) | 5.15 (3.011) | 1.77 (1.699) | 0.23 (0.737) | 3.11 (2.517) | 44.11 (10.848) |
| 8세 후반($n=10$) | 47.98 (7.316) | 2.42 (1.972) | 0.86 (1.137) | 0.00 (0.000) | 4.08 (4.496) | 44.66 (6.507) |
| 9세 후반($n=10$) | 48.97 (13.298) | 4.02 (3.247) | 0.96 (1.692) | 0.00 (0.000) | 4.10 (5.863) | 41.96 (11.675) |

3) 연령별 주어 표현의 적절성 정도 비교

아동이 회상산출한 담화에 대하여 문장과 담화 층위에서 주어 표현 유형에 따라 적절성과 부적절성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기술통계는 <표 6>과 같다. 9세 집단에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전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주어 표현 유형에 따른 적절성이 증가하였다. 주어의 부적절한 표현은 9세 집단을 제외하고, 연령 증가에 따라 부적절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6> 연령별 주어 표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
 평균(SD)

| | 적절 | 부적절 |
|-----------------|--------------|--------------|
| 5세 후반($n=10$) | 86.53(6.672) | 13.47(6.672) |
| 6세 후반($n=10$) | 88.47(5.491) | 11.53(5.491) |
| 7세 후반($n=10$) | 91.51(3.677) | 8.50(3.677) |
| 8세 후반($n=10$) | 93.50(4.148) | 6.50(4.148) |
| 9세 후반($n=10$) | 91.89(5.212) | 8.11(5.212) |

<표 7> 주어 표현 유형에 따른 적절성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 | 제공합 | 자유도 | 평균제공 | F |
|------|----------|-----|--------|--------|
| 집단 간 | 317.480 | 4 | 79.370 | 2.994* |
| 집단 내 | 1193.047 | 45 | 26.512 | |
| 합계 | 1510.526 | 49 | | |

* $p<.05$

<표 8> 주어 표현 유형에 따른 부적절성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 | 제공합 | 자유도 | 평균제공 | F |
|------|----------|-----|--------|--------|
| 집단 간 | 317.480 | 4 | 79.370 | 2.994* |
| 집단 내 | 1193.047 | 45 | 26.512 | |
| 합계 | 1510.526 | 49 | | |

* $p<.05$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주어 표현 유형에 따른 적절성 여부에 따른 비율에 대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표 8>에 제시하였다. 주어가 담화 층위에서 적절하게 표현된 비율은 연령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4, 45)=2.994, p<.05$). 그리고 주어가 부적절하게 표현된 비율도 연령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4, 45)=2.994, p<.05$). Duncan 사후 검정 결과, <표 9>와 같이 주어를 적절하게 산출하는 정도가 5세 후반·6세 후반 집단이 6세 후반 이후 집단과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표 9>에서 부적절한 정도가 5세 후반·6세 후반 집단과 6세 후반 이후 집단이 서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표 9> 주어 표현 유형에 따른 적절성/부적절성에 대한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 | 적절 | | | | | 부적절 | | | | |
|-------|-------|-------|-------|-------|-------|-------|-------|-------|-------|-------|
| | 5세 후반 | 6세 후반 | 7세 후반 | 8세 후반 | 9세 후반 | 5세 후반 | 6세 후반 | 7세 후반 | 8세 후반 | 9세 후반 |
| 5세 후반 | | | | | | | | | | |
| 6세 후반 | | | | | | | | | | |
| 7세 후반 | * | | | | | * | | | | |
| 8세 후반 | * | | | | | * | | | | |
| 9세 후반 | * | | | | | * | | | | |

* $p < .05$

2. 회상산출 시 연령별 절의 조밀도와 길이 비교

1) 연령별 절 길이 비교

회상산출에서 나타난 연령별 절 길이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연령의 증가에 따라 T-unit 당 어절 수의 증가가 나타났다. 연령 집단 간 이러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4, 45) = 2.666, p < .05$).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이에 대한 사후 검정 결과, 절의 길이에 대한 연령 집단에서의 차이를 <표 12>에 제시하였다. 5세 후반·6세 후반·7세 후반 집단과 6세 후반·7세 후반·9세 후반 집단, 7세 후반·8세 후반·9세 후반 집단이 서로 차이가 있었다. 이로써 어린 집단과 더 높은 연령의 집단 간에 연령별 절 길이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연령별 절의 길이 및 조밀도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

평균(SD)

| | 절의 길이(MLTR) | 절의 조밀도 |
|-----------------|-------------|-------------|
| 5세 후반($n=10$) | 5.87(0.860) | 2.00(0.379) |
| 6세 후반($n=10$) | 6.08(0.956) | 2.01(0.381) |
| 7세 후반($n=10$) | 6.63(1.164) | 2.29(0.509) |
| 8세 후반($n=10$) | 7.24(1.039) | 2.35(0.414) |
| 9세 후반($n=10$) | 6.99(1.514) | 2.44(0.819) |

<표 11> 절의 길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 | 제공합 | 자유도 | 평균제공 | F |
|------|--------|-----|-------|--------|
| 집단 간 | 13.604 | 4 | 3.401 | 2.666* |
| 집단 내 | 57.411 | 45 | 1.276 | |
| 합계 | 71.015 | 49 | | |

* $p < .05$

<표 12> 절의 길이에 대한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 | 5세 후반 | 6세 후반 | 7세 후반 | 8세 후반 | 9세 후반 |
|-------|-------|-------|-------|-------|-------|
| 5세 후반 | | | | | |
| 6세 후반 | | | | | |
| 7세 후반 | | | | | |
| 8세 후반 | * | * | | | |
| 9세 후반 | * | | | | |

* $p < .05$

2) 연령별 절의 조밀도 비교

회상산출 시 학령기 일반아동들이 연령별 산출한 T-unit 당 절의 수를 분석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10>과 같다. 연령의 증가에 따라 T-unit 당 절의 수의 증가하였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절의 조밀도는 연령 간 유의미하지 않았다($F(4, 45) = 1.462, p > .05$).

IV. 논 의

본 연구에서 이야기 회상산출에서 연령별 아동들의 주어 표현 형태와 절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아동들의 담화에서 주어를 생략하는 비율이 존재하는 비율과 거의 대등하였다. 이는 주요 논항 중 주어의 생략이 자주 일어나는 한국어의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주어의 생략 여부에 대하여 참여한 모든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발달적으로 5세 후

반 집단에서 이미 모국어 사용에서 문장을 형성하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회상산출 시 아동들이 주어를 생략하는 비율이 감소하였으며, 존재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였다. 2세 아동의 종단연구(이희란, 2004)에서 생략된 주어 사용이 무표주어와 표지주어 사용보다 많았으며, 이로 어린 연령에서 주어를 많이 생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수진(2000)의 4세, 6세, 8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회상산출 시 연령 증가에 따라 필수 논항들의 생략이 감소하고 어휘반복율이 증가한 것과 일치한다. 또, 신수진 외(2007)의 연구에서 자발적 산출을 이용하여 7세 전반 집단에서 C-unit 당 중요논항의 생략이 0.203개였으나 8세·9세 전반 집단(0.095개, 0.108개)에서 감소한 것과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5세 후반 집단에서만 주어를 생략하는 비율이 주어가 존재하는 비율보다 높았다. 어린 아동들이 긴 담화를 처리하고 회상하는 과정에서 주어 사용을 통하여 보다 회상율을 높이고 문장들을 연결하려는 의도를 보였음에도 주어 생략이 다소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의 증가에 따라 주어가 생략되는 정도가 점차 감소하였으나, 더 높은 연령의 집단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정도와 대등할 정도로 생략이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린 집단에서 나타나는 주어 생략 특성을 구문적이거나 화용적인 오류로 생각할 수 있으나, 더 높은 연령 집단의 주어 생략은 결속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사용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모든 집단에서 ‘생략(생략 가능)’ 유형과 ‘존재(생략 불가)’ 유형이 대부분을 이루었으며, 연령 집단 간 주어를 표현하는 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연령 증가에 따라 ‘존재(생략 불가)’ 유형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였다. 한국어의 연결어 종류로 반복 표현과 생략 표현, 대용 표현(지시 대명사 등), 접속 표현(그리고, 그래서 등)이 있으며, 기타 표현으로 보조사나 부사어, 연결어미 등이 있다. 이러한 연결어들이 담화의 결속성을 높여준다. 담화에서 반복 표현은 앞뒤의 발화를 이어주고 더욱 결속시키고, 발화의 연쇄가 계속될 때, 후행 발화에서 선행 발화의 반복되는 부분을 생략함으로써도 결속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김태엽, 2008). 문장 속의 생략이나 이어진 문장 속에서의 생략은 반복을 줄이기 위한 생략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남기심, 고영근, 2011). 경제성 뿐만 아니라 결속성도 나타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아동들이 발달에 따라 결속성을 위하여 주어 생략을 여전히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오류 형태인 ‘존재(교체)’ 유형은 8세 후반 이후 출현하지 않았다. 소수의 출현을 보인 유형들의 변화는 대상자 집단의 데이터가 작아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었다.

주어를 표현하는 유형들의 적절성 여부에 따른 연령 집단 간 변화를 살펴보면, 연령의 증가에 따라 적절한 주어의 표현이 증가하고, 부적절한 주어 표현이 감소하였다. 이희란(2004)은 2세 아동이 이전 발화에 대하여 주어가 대조 정보일 경우에

주어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고, 기존 정보일 경우에는 생략하는 빈도가 더 많았지만 존재하는 빈도도 많았다고 하였다. 이는 2세 아동이 주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적절과 부적절성 모두에서 5세 후반과 6세 후반 집단이 6세 후반 이후 집단과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발달적으로 6세를 전후하여 더 높은 연령 집단에서 보다 더 주어 생략 및 존재 표현이 적절함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한국어 담화에서 주어가 생략된 경우에도 절이 구성되며, 주어 생략 여부와 상관 없이 6세 후반 이후에 종속절을 내포한 주절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분석 방법인 T-unit을 사용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9세 후반 집단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 집단에서 절 길이는 다소 증가하였다. 이는 Paul(2007)이 문어 산출 시에 조금 더 큰 변화가 있으나, 구어 산출 시 T-unit 당 MLU가 3학년에서 약 7.6에서 5학년에는 약 8.8로 천천히 증가한다고 한 것과 일치한다. 본 연구 결과, 어린 집단과 더 높은 연령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점진적인 증가지만 연령에 따른 절 길이의 변화가 분명히 존재한다.

연령에 따른 절 조밀도의 발달을 살펴보았다. T-unit 당 절의 수가 발달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으나 연령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절의 조밀도가 연령에 따라 크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증가가 일반적이라는 연구와 일치한다. 특히, 글 없는 그림책이 다른 과제 유형에 비하여 더 많은 C-unit을 산출하는데(김고운, 안성우, 서유경, 2007), 본 연구에서는 글 없는 그림책에 대하여 회상 산출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어린 연령 집단에서도 보다 쉽게 절을 산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 음성 언어(대화) 표본에서 생략된 논항과 그에 상응하는 선행사나 후행사 사이에 위치한 낱말 수가 문장 내에서는 평균 6.6 단어, 문장 간에서는 평균 5.6 단어 거리를 이루며, 문자 언어 표본에서는 문장 내에서 평균 7.2 단어, 문단에서는 평균 8.6 단어 거리를 이룬다(서천수, 1994). 이는 작업기억 용량이나 지속시간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어에서도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한국어를 사용하는 아동들이 인식하는 단어 간 거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본 연구에서는 바로 전 선행 발화로 제한하였다. 전체 담화의 견지에서 주인공이나 그 대상자의 생략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담화 측면에서 단어 간 거리 인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일반아동들의 회상산출에서 나타난 주어의 표현을 생략 여부, 생략 유형, 적절성에 따라 구분하여 주어 생략의 특성을 밝히고, 절의 길이와 조밀도의 연령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담화의 회상산출에서 주어의 생략 정도와 존재 정도가 거의 대등하였다. 또, 연령에 따라 문장과 담화 층위에서 주어가 생략되거나 존재하는 유형과 비율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미 5세 후반 이전에 아동들이 모국어의 ‘주어+서술어’ 기본 구조를 익혔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한국어의 특성인 주요논항의 생략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모든 집단에서 주어의 표현 유형 중 ‘존재(생략 불가)’ 유형과 ‘생략(생략 가능)’ 유형이 주로 나타났다. 연령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6세 후반 이전 연령 집단에서는 ‘생략(생략 가능)’ 유형이 가장 많았고, 7세 후반 이후 연령 집단에서는 ‘존재(생략 불가)’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존재(교체)’의 오류 유형은 8세 후반 집단 이후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연령에 따라 주어 표현의 적절성 여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6세 후반 연령을 경계로 보다 적절하게 주어 표현을 사용함을 시사한다.

넷째, 회상산출 시 연령에 따른 절의 길이가 어린 연령에 비하여 더 높은 연령에서 보다 높은 차이를 나타내었고, 절의 조밀도가 서서히 증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연령 집단별 대상 수에 있어 한정이 있어 결과 해석의 제한점이 있다. 구어체와 문어체 담화에서 필수논항의 대명사 변환이나 필수논항의 이동은 빈도가 적고,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필수논항의 생략이다(강지수, 2005). 특히 목적어나 서술어보다 주어의 생략 현상이 더 높게 나타므로 본 연구는 주어의 생략 여부에 중점을 두었다. 후속 연구에서 주어가 존재하는 경우의 특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절의 길이와 조밀도에서 뿐만 아니라 주어 생략 특성과 문법적 오류 형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문어에서 경계선지능의 언어발달장애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하여 어순과 문장 형식, 올바른 연결어의 사용 등이 낮다(유경, 정은희, 2007). 문어, 자발적 산출과 같은 언어의 다양한 형식, 장애 집단 등에서의 주어 생략 특성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연임 (1999). 담화에서의 생략조건과 대상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43, 505-522.
- 강지수 (2005). 구어체 담화와 문어체 담화의 문법 현상 비교. **어문연구**, 47, 63-82.
- 권도하 (2010). 말더듬 형태 분석에 있어 단어에 대한 기준 확립을 위한 기초 연구. **언어치료 연구**, 19(1), 119-128.
- 김고원, 안성우, 서유경 (2007). 언어학습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이야기 구성능력 비교.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4), 655-677.
- 김영태 (2002). **아동언어장애의 진단 및 치료**. 서울: 학지사.
- 김태엽 (2000). 국어 담화표지의 유형과 담화표지되기. **우리말 글**, 19, 1-23.
- 김태엽 (2008). **국어학 개론**. 서울: 도서출판 역락.
- 남기심, 고영근 (2011). **표준국어문법론 제3판**. 서울: 탑출판사.
- 노은희 (1997). 대화에서 반복표현의 성립조건과 유형. **국어교육연구**, 4, 101-122.
- 배소영, 권유진, 진연선 (2009). 이야기 평가(Korean Narrative Assessment: KONA). 춘천: 한림언어병리워크샵.
- 서천수 (1994).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에 나타난 생략의 특성. **부산영어교육**, 3, 59-81.
- 신수진, 박은숙, 이기학, 배소영 (2007). 초등 저학년 아동의 학년에 따른 이야기 산출 능력. **언어청각장애연구**, 12(1), 16-31.
- 양명희 (1996). 국어의 생략 현상. **국어국문학**, 117, 125-157.
- 양수진 (2000). 이야기 결속표지 발달: 4세, 6세, 8세 및 성인을 대상으로.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엄순천 (2006). 생략의 개념과 조건 및 대상: 현대 러시아어 구어체 담화를 중심으로. **러시아어문학 연구논집**, 21, 383-410.
- 유경, 정은희 (2007). 이야기쓰기활동을 통해 살펴본 학령기 경계선지능 언어발달장애아동의 쓰기 특성.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3), 231-247.
- 이강현, 권도하 (2002). 이야기 다시 말하기를 통한 학령기 아동의 의미 및 구문 구조 발달에 관한 연구. **언어치료연구**, 11(2), 93-116.
- 이봉원 (2008). **언어치료사를 위한 한국어문법**. 천안: 나사렛언어청각센터.
- 이성범, 홍승진 (2009). 생략적 발화의 화용적 기능. **담화와 인지**, 16(1), 63-82.
- 이희란 (2004). 2세 한국 아동의 주어 발달 특성. **언어청각장애연구**, 9(2), 19-32.
- Mayer, M. (1969). *frog, where are you?*. New York: Dial Books for Young Readers.
- Miller, J. F. (1981). *Assessing Language Production in Children: Experimental Procedures*. Baltimore: University Park Press.
- Paul, R. (2007). *Language Disorders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Assessment and Intervention, 3th*. Philadelphia: Mosby Elsevier.
- Scott, C., & Winsor, J. (2000). General language performance measures in spoken and written narrative and expository discourse of school-age children with language learning disabilitie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3, 324-339.
- Strong, C. J. (1998). *The Strong Narrative Assessment Procedure*. Wisconsin: Thinking Publications.

A study on omission of subject in Korean story retelling

Kwak, Mi Yeong

Dept. of Rehabilitation Science, Daegu University

Kwon, Do Ha

Dept. of Speech Pathology, Daegu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haracterize omission of subject in Korean narrative and to investigate clause length and density between ages. The participants were 50 Korean children in 5;6 ~ 5;11, 6;6 ~ 6;11, 7;6 ~ 7;11, 8;6 ~ 8;11, 9;6 ~ 9;11 years. The children listened to 'frog, where are you?' (Mayer, 1969), and were asked to recall the story. The samples were classified in clauses which includes omitted subject. As a result, rates of omission or presence of subject were similar within ages and between age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roduction expression of types of subjects, but 'subject presence(not omitted)' and 'subject omission (be omitted)' types were the most common. 'Subject presence(replacement)' type was not appear after 8 years. Appropriate and inappropriate rates of subject expression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ges. Appropriate uses of subject were increased after late of 6 years. In analysis of Mean length of T-unit or C-unit(MLTR) and clause density were increased slowly, and clause length was significant difference with ages. We could suggest that the conclusion aided clinicians to analysis of syntax of Korean children.

Key Words : subject omission, subject expression, clause density, syntax development

논문 접수: 2012. 08. 05 심사 시작: 2012. 08. 10 게재 확정: 2012. 09. 10

<부록 1> 회상산출용 이야기

어느 봄날, 철수는 냇가에 놀러갔다가 개구리를 잡아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그 개구리를 유리병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
그런데 밤이 되어 철수가 잠든 사이에 개구리는 병속에서 몰래 빠져나와
창문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철수는 개구리가 없어진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
철수는 개구리가 방안에 숨어있나 여기저기를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개구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철수는 창문을 열고 “개구리야, 어디 있니?” 하고 소리쳤지만 개구리는 밖에
없었습니다.
강아지가 개구리를 찾으려고 병속을 들여다보다가 머리가 병에 끼었습니다. //
그리고 창문 아래로 떨어져서 병이 깨졌습니다.
철수는 강아지가 괜찮은 지 안아서 살펴보았습니다. //
철수는 강아지를 데리고 개구리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
길을 가다 땅에 난 구멍을 보고 철수가 고개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난 두더지가 나와서 철수 코를 물었습니다.
강아지는 벌을 보고 짖으며 나무에 뛰어올라서 벌집이 떨어졌습니다. //
화가 난 벌들이 쫓아와 철수와 강아지는 도망갔습니다. //
철수는 커다란 바위 위에 올라가 나뭇가지를 붙잡고 개구리를 찾았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나뭇가지가 움직이더니 철수를 들어올렸습니다.
그것은 나뭇가지가 아니고 바로 사슴의 뿔이었습니다.
사슴은 철수를 태운 채 마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도 사슴한테 짖으며 함께 달렸습니다. //
그러다가 사슴은 낭떠러지 앞에서 갑자기 멈춰서서 철수를 낭떠러지 아래 있는
넷물에 빠트렸습니다. //
그 때 무슨 소리가 냇가에 있던 통나무 뒤에서 들렸습니다. //
철수와 강아지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
거기에서는 개구리 여러 마리가 모여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개구리가 철수에게 인사를 하러 폴짝 뛰어왔습니다. //
그래서 철수는 그 개구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철수는 다른 개구리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습니다. //

<부록 2> 절의 구분 원칙

| 원칙 | 예 |
|---|---|
| 1. '주어+서술어' 를 중심으로 절이나 문장 단위로 구분한다. | 개구리가 <u>달아났다</u> . |
| 2. 공존격 조사로 연결된 두 개 이상의 주어가 서술어와 한 번 관계하면 전통문법에 따라 하나의 주어로 분석한다. | 철수와 강아지가 물에 <u>떨어져서</u> |
| 3. 서술어가 두 개 이상 연속적으로 연결될 때 각각을 구분하여 분석한다. 이 때 강조를 위하여 반복된 경우에는 구문적으로 한 번으로 분석한다. | 철수가 구멍을 <u>발견하고</u> ∅ <u>소리쳐서</u> 철수가 <u>먹고</u> (먹고) |
| 4. 주어가 생략되고 서술어만 남아서 수식어 역할의 단어 하나로 이뤄진 절은 관계관형절이지만(남기심, 고영근, 2011, 394쪽), 본 연구에서는 그 수식어를 형용사나 관형사로 판단하여 절로 보지 않는다. 이는 과도한 절의 인정으로 아동 발달기에 나타나는 구문 복잡성의 과대 해석을 초래할 위험을 막기 위함이다. | 작은 개구리가 <u>도망쳤다</u> . |
| 5. 종결어미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연결어미로만 구성된 발화 시에 발화 구분 원칙(김영태, 2002)에 따라 구분하며, 서술어가 연결형이나 명사형으로 종결된 경우에 기능이 종결어미로 전용된 것으로 인정하여 분석한다 (남기심, 고영근, 2011, 256쪽). | 철수가 <u>찾았는데</u> . / ∅ <u>숲으로 갔는데</u> . (기능 전용: 절 2개) 철수가 <u>찾았는데</u> / 개구리가 <u>없었다</u> . (대등적 절: 절 2개) |
| 6. 학교문법에서 '되다' 나 '아니다' 는 주어와 보어('체인+이/가')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주어가 생략된 관용적 표현은 생략이 된 절로 분석하고, 사전 고시 없이 특정 주어를 지칭하는 경우의 생략은 절로 인정하지 않는다. | ∅ <u>봄이 되어</u> (적절) (이모가) <u>선생님이 되어</u> (부적절) |
| 7. 본용언과 보조용언으로 구성된 경우('-고 싶다', '돌아가다')나 합성용언('화내다, 마음먹다', '상관없다', '그만두다')은 하나의 서술어로 분석한다.(이봉원, 2008). | 철수가 구멍을 <u>살펴보았고</u> |
| 8. 도치로 인하여 주어 생략의 방향성을 위배하였으나 연결된 뒷 절에서 그 주어가 존재하는 경우에 도치된 절에서 주어가 생략된 것으로 분석한다. 이는 앞 절과 동일한 주어가 생략된 것과는 구분한다. | ∅(철수) <u>바위에 올라가서</u> 철수가 개구리를 불렀다. |
| 9. 대화체에서 주어가 생략되었으나, 대상이 분명한 경우에는 절로 인정한다. | "개구리야, (너는) 어디 있니?" |
| 10. 형태소의 부적절한 사용이 나타난 경우에 의미적 전달이 가능한 발화라면 적절한 형태로 바뀌어 분석한다. | 그 병이 얼굴이(에) <u>졌습니다</u> . |